

대행 스님

나의 고집을 세우지 말고 몽땅 다 한순간에 놓으십시오

우리 마음과 주인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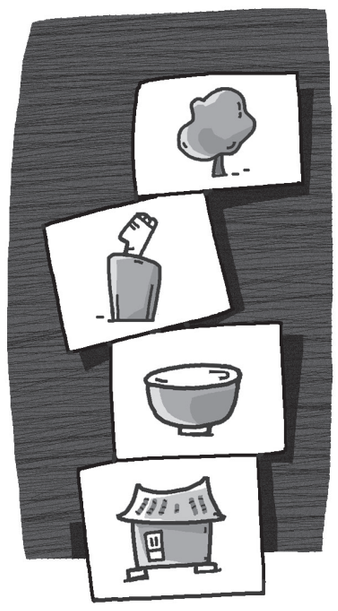
질문 마음공부를 하다 보니 우리의 마음과 주인공 참나라는 개념이 헷갈립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쉽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람들은 그 몸 안에 천차만별로, 가지각색으로 용도에 따라 구별이 된 의식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선이면 선, 악이면 악으로 말입니다. 또는 유전성, 영계성, 업보성, 세균성, 인과성 이 모두를 가지고 있는 장본인이 내 몸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장은 무엇이냐? 그렇게 의식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바로 능력만 배출해 줄 수 있는 심봉과 같은 근본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근본! 그거는 부동합니다. 움죽거리지 않으면서 힘을 배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심봉이죠.

그러니까 그 심봉에게 전부 맡기면, 돌아가면서 그 심봉에 의해서 다스려집니다. 그러니까 입력됐던 것이 심봉에 의해서 모두 없어지면서 새로 들어가는 마음이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알고 믿고 행을 해야, 그게 체험도 되고 물리가 터지는 것도 알게 되고 나, 참나가 있다는 것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죠. 그랬을 때 자꾸자꾸 놓고 그렇게 입력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확 터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입력하는 것은 모든 걸 버리는 겁니다, 지금. 버리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바꿔 쓰는 거죠. 언짢은 건 바꿔 쓰고 좋은 거는 그대로 쓰고, 이렇게 모든 것을 아주 지혜롭게 해 나가는 거죠. 해 나가다 보면 '아, 이것이 바로 하나로 돌아가는, 한 혹성의 별성들 전체가 은하계처럼 내 몸뚱이 속에서 돌아가는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생활 속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든지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든지 모든 것을 선장의 그 심봉한테 맡기면…, 즉 말하자면 선장이란 이름해서 선장이지 자기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선장이라고도 하고,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진아(眞我)라고도 하고, 부처님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그 주인공이라는 것은 같이 찰나 화해서 돌아가니까 주인공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그 부동한 선장한테 다 일임해 놓으면 내 심상대로, 생각한 그대로 그냥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건 컴퓨터를 누르는 대로 컴퓨터에 입력되는 대로 나오게 돼 있으니까요. 이렇게 일러드리면 잘 아시겠죠? 허허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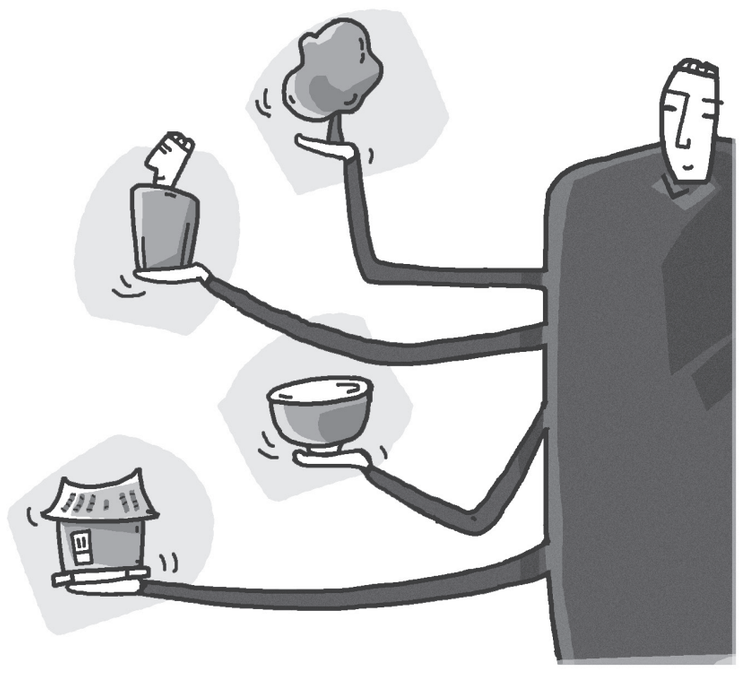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어떻게 믿어야 하나요

질문 주인공에 놓으려면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확실한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믿어야 될는지요.

답변 어떻게 믿긴 뭘 어떻게 믿어요? 자기가 이 세상에 났으니까 믿어야죠. 자기를 끌고 다니는 그놈이 바로 자기 마음의 주인인데 주인이 과거로부터 이끌고, 지금도 또 이끌고 가는데 어떻게 안 믿겠소? 허공을 믿겠소, 이름을 믿겠소, 고깃덩어리 형상을 믿겠소, 무엇을 믿겠소? 나부터 믿고 나부터 알아야 상대를 알고, 상대를 알아야 우주를 알고 세계를 알고, 내 나라도 생각할 수 있고, 내 가정도 생각할 수 있고, 사회 국가 모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때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자기가 자기도 못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믿고 돈을 주며, 또 남의 보증을 서고 망하고 온통 이러나요? 어떻게 자기도 못 믿는 사람들이 남을 믿습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픈 것도 대신 아파 줄 수 없고, 대신 죽어 줄 수 없고, 대신 먹어 줄 수 없고, 대신 똥 눠 줄 수 없고, 대신 자 줄 수 없단 얘깁니다. 자식과 부모지간에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못 믿어요. 자기 자신인 자신을 어째서 못 믿습니까? 사람이 본래 직감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그런데 본래 그 자성신이 없다면 그 직감이라는 것도 없고 목석인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믿어야지 어떻게 무조건 믿지 않습니까? 내가 있음으로써 상대가 있는 것이고 세계가 벌어졌는데, 내가 없으면 무효인데 나를 어째서 믿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아직 물질에, 50%의 물질의 관념을 가지고 습이 되어서 졸졸이 그냥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고집, 뭐, 또 날짜를 보지 않으면 이사를 못 간다는 고집, 또 굴왕신이 내리면 집을 못 짓는다는 고집, 팔자 운명이 있다는 고집, 업보가 있다는 고집, 유전이 있다는 고집, 모두 고집을 세우다가 걸려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고집 고집을 다 몽땅 한순간에 놓으십시오.

예전에 어느 한 큰스님이 이런 말을 하십디다. 눈을 뜨고 삼 년만 쉬어라. 자거라이 소리죠. 하하하. 눈을 뜨고 어떻게 삼 년을 잡니까? 생각들을 해 보세요. 그러니 어떻게 자기를 믿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여러분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입니다. 일제 시대 때 먹을 거나 있나요? 건빵을 우거지에다가 넣고서는 푹푹 끓여서 한 그릇씩 먹는데 아, 딴 집들은 보리밥이라도 그래도 쌀 넣고 이렇게 해 먹는 걸 보았거든요. "아무개네 집은 그렇게 해 먹는데, 우린 이걸 먹어?" 그러니까 "그 집의 쌀밥보다 우리집 우거지에 건빵 넣고 끓인 게 더 좋으니라." 이러신단 말입니다. 그때는 그게 아예 천부당만부당했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못났든 잘났든, 못 배웠든 잘 배웠든 내 부모가 제일인 것처럼, 못났든 잘났든 나 자체가 제일인 것입니다. 내가 있음으로써 내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이 있음으로써 나를 끌고 다닌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활을 쏠 때 진짜 자기한테 쏘십시오. 그러면 일천만 가지가 다 녹아서 스러져 버리고 과거 또는 업보, 유전성 영계성 업보성 세균성 윤회성 이런 것이 다 몰락 그냥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주인공 공부와 다른 건지요

질문 얼마 전부터 큰스님 유튜브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사경도 하고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이렇게 저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도 하면서 나름 정진을 하고 있었는데 주인공 공부와는 다른 것인지요.

답변 뭐, 문은 여기도 많죠. 염불을 해서

☞ 20면으로 계속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